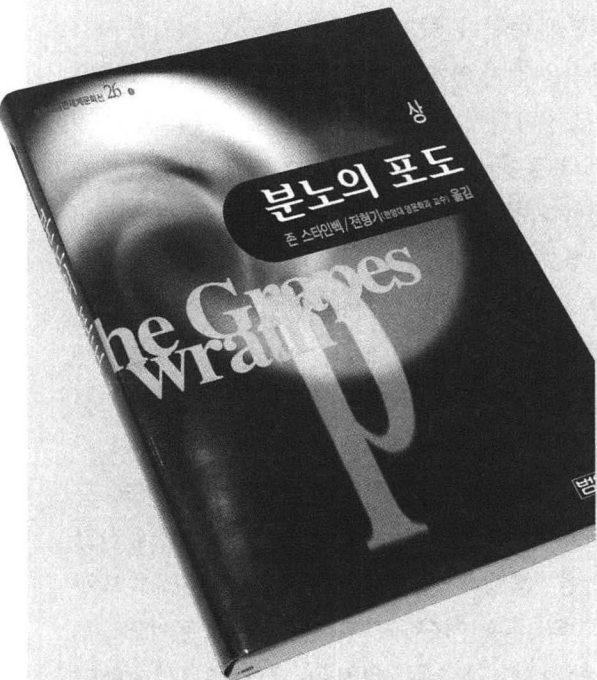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현실을 직시하는 ‘문학’의 힘



《분노의 포도》(상·하 2권) | 존 스타인벡 지음 | 전형기 옮김 | 범우사 | 각권 360쪽 내외 | 각권 값 9,000원

● 이 글을 쓴 표정훈은

책을 읽고 쓰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출판평론가, 번역가, 작가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직함을 번역·저술가 로 통폐합하는 중이며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매문기^{문자}'로 규정한다. 저서로 《하룻밤에 읽는 삼국지》《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책은 나뭇의 운명을 지닌다》《탐서주의자의 책》《나의 천 년》이 있고, 역서로 《중국의 '자유' 전통》《고대문명의 환경사》《진영첩의 주자강의》《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불사의 추구》 등이 있다.

대공황 직후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극심한 가뭄이 몰아닥쳤다. 지주와 은행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농민들은 흠뻑지만 날리는 불모의 대지를 버리고 풍요의 땅이라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다. 바로 이 즈음, 술 취한 상태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톰 조드가 가석방으로 풀려나 귀가하다가 유랑 목사 짐 케isi와 만나 함께 집에 도착했고, 곧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났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캘리포니아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했다. 그곳은 결코 약속의 땅이 아니었고 기아, 질병, 핍박, 착취로 가득한 고난의 땅이었다.

조드 가족은 실업자 캠프에 수용되는 데, 수용민들과 보안관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케isi는 싸움의 책임을 스스로 떠맡아 체포된다. 케isi는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이끄는 인물이 된 것이다. 조드 가족은 일자리를 찾아 계속 방랑하게 되고, 톰은 케isi와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케isi가 자경단원에게 살해당하자, 케isi를 죽인 자경단원을 죽이고 쫓기는 신세가 된다. 톰의 동생들은 이웃 아이들과 다투다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오빠 톰에 관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어머니는 톰을 찾아와 도망 갈 것을 권한다. 톰은 어머니 앞에서 케isi의 뜻을 이어 굶주리고 핍박받는 사람들 편에서 싸울 것을 약속한다.

이기적이었던 톰은 이제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다. “케isi 목사님이 말하길, 우리 각자의 영혼은 그저 하나의 작은 조각에 불과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합쳐져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지금은 나도 인간 하나 하나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 온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자기가 지은 농사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 떠나겠어요.”

이렇게 톰은 떠나고, 조드 가족을 비롯한 실업자 캠프 사람들은 돈과 먹을 것과 일자리가 없는 비참한 상황에 계속 고통받는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톰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웠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죽어 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더 강해집니다. 오늘 하루만, 하루만 더 살아남기 위해 우리 노력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홍수가 일어나 사람들의 텐트와 낡은 자동차를 휩쓸어 버렸고, 굶주린 사람들은 썩은 채소로 끼니를 이으며 물에 잠기지 않은 거처를 찾아 헤맨다. 이런 가운데 조드 가족의 딸 로즈 어브 세론은 사산을 하고 며칠 후 조드 가족은

건초가 있는 헛간을 발견하지만 그곳에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남자가 있다. 국물이나 우유 외에는 넘길 수도 없는 그 남자에게 로즈 어브 세론은 불은 젖을 물린다.

이상이 미국 작가 존 스타인벡이 1939년에 발표한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의 줄거리이다. ‘분노의 포도’라는 제목은 줄리아 워드 하우스의 시로 남북 전쟁 시절 북군의 군가이기도 했던 ‘공화국 찬가’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의 한 구절 ‘분노의 포도가 저장된 수확고를 밟고 있다’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는 구절과 상관있다. 조드 가족과 같은 빈농을 억압하는 악덕 농장주나 자본가들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작품의 구성으로 보면 구약 성서의 〈출애굽기〉,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찾아 고난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에 견줄 수 있으며, 방랑 목사 짐 케이는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와 머리글자가 J와 C로 같다. 작품 속 케이의 행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견줄 수 있는 것도 물론이다.

한편 스타인벡의 이 작품은 존 포드 감독, 헨리 폰다 주연의 동명 영화로도 유명하다.(오스카상 감독상과 여주조연상 수상) 1940년에 개봉했으나 작품이 나오기 1년 만에 제작된 것인데, 그만큼 《분노의 포도》가 미국 사회에 일으킨 반향이 컸다. 존 포드 감독은 원작의 암울한 분위기를 다소 완화시켰고, 결말 부분도 원작보다 희망적인 것으로 바꾸었지만, 자본주의의 맹점을 통렬하게 고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해나가던 상황 속에서, 대자본에 의한 농업 기계화로 미국 중서부 및 남서부 평야 지대의 소농들은 몰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 가난, 기아, 분노, 고통, 억압, 착취, 이런 말들이 실감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초상화를 존 스타인벡은 조드 일가의 고난을 통해 생생하게 형상화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 작품을 놓고 미국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스타인벡이 이른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나 계급 문학의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한층 심원한 휴머니즘의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다.

초판이 50만 부나 팔릴 정도였으니 판매에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견줄 수 있고, 사회적 파장으로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견줄 수 있다는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사회적 파장이란 《분노의 포도》를 계급투쟁의 메시지를 담은 사회적 고발과 항의의 글로 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데서 비롯됐다. 대공황이라는 현실은 당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이는 자본주의의 위기 혹은 실패가 결국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낳았다.

그러니 미국의 중상류층과 지배 계층의 입장에서 《분노의 포도》는 매우 불온한 작품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의 ‘80년대’ 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분노의 포도》를 ‘무산자 계급의 비참한 현실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계급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는 폭력 혁명을 선동하는 불온하기 짝이 없는 작품’이었던 것이다. 당시 이 작품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검정 색으로 가득한 악마적 창조물’, ‘증오와 분노를 주제로 한 파괴적인 내용의 끔찍한 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품의 주요 무대가 되는 오클라호마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공공 및 학교 도서관에서 금서로 지정되거나 배척당했고, 존 포드 감독의 영화를 놓고서도 상영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초판 50만 부라는 판매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노의 포도》를 비난하면서 금지시키려 했던 세력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출간 이듬해인 1940년에 존 스타인벡은 풀리처상을 받았고, 1962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것이다. 《분노의 포도》를 둘러싼 당시 미국 사회의 논란은, 어떤 책이 금서가 되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위대한 문학 작품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현실을 그려냄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을 문학적으로 창조해낸다. 사람들은 그런 진실(문학적 진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을 접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 이른바 기득권 세력은 그런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4]

글_표정훈